

대학의 심장부, 도서관

朴 淳 英

(延世大 哲學科)

다른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 그곳의 대학 도서관을 둘러본 적이 있다. 흔히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심장부는 병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원래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 도서관 시설의 대부분은 열람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험 때가 아니라도 도서관에 들려보면 도서관은 포화 상태이다. 흡사 대학 진학 수험생들의 사설 독서실을 방불케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할 분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인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습관되어 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서관은 늘 만원이다. 각 학과마다 각기의 도서실이나 열람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로 몰려오는 것은 당연하다. 각 지체마다 혈액을 공급해 주어야 할 심장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혈액이 심장에만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책을 쌓아두는 서고는 글자 그대로 창고이다. 그래서 도서관의 책은 늘 담 너머에 숨겨져 있다. 한마디로 책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혈액 순환처럼 책은 구석구석에까지 원활히 잘 돌아다녀야 한다. 이런 발상에 대한 반론은 대체로 도서 관리의 어려움과 도서 분실의 두려움이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언제가는 이런 용단이 내려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유학 시절에 돈을 푼푼이 모아서 책을 사서 모으는 것을 본 외국 친구들은 도서관 책을 잘

이용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의아해 한다. 그 친구들이야 계속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지나간 학기에 사용했던 책을 학생 식당 앞에 늘어 놓고 헐값에 팔아 넘긴다. 그들은 굳이 책을 사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언제든 도서관에 가면 책을 손쉽게 빌려 볼 수도 있을 뿐더러 도서 대출 기간도 한 달씩이나 되어서 부담이 없다. 시간 도서나 전공 도서는 거의 대부분이 도서관에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학과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도 '원거리 대출(Fernleihe)'이란 것이 있어서 다른 대학의 도서관에서 빌려다 대출해 준다. 독서 수준이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도서관 운영의 수준은 그 대학과 그 나라의 학문 발전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연구 기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대학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매개해 주는 도서관을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심장 기능과 비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도서관의 기능은 연구자에게 책이 손쉽게 쥐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소장 도서의 수자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몇 십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에 정작 필요한 책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 건물의 신축이나 대학 홍보에는 안간힘을 쓴다.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는 역사가 50년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많다. 그리고 몇 년전에 신설된 대학들도 있다. 그 대학의 역사를 불문하고 모두들 대

학 건물의 신축 밖엔 여념이 없다. '80년대에 들어서 학생수와 교수수의 증가가 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보지만 내가 보았던 외국의 한 대학은 이와 사정이 달랐다. '60년대 초에 신설된 이 대학에 '60년대 말경에 가보니 곳곳에 대강당 신축, 대학 본부, 행정 부속실 등의 공사 때문에 혼잡스러웠지만 대학 도서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잘 정비되어 있었다. 대학은 강의실과 도서관이 동시에 계획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했을 것이다. 강의실과 칠판만 있으면 대학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이제 우리 대학에도 통용되지 않아야 할 테도라야 한다. 시설 투자와 학생 증원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우리 실정에 도서관의 장서를 늘이고 각 학과마다 도서실과 열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의 장서를 각 학과로 분산시키는 것은 중앙도서관의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책과 더 가까워 질 수 있고 게다가 도서실을 개가식으로 운영하면 책 속에 파묻혀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장서 수자만이 도서관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이 박물관과 다르다면 도서 구입은 신간 도서와 학술 잡지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 도서관에서도 외국 학술 잡지를 거의 다 구독하거나 국내 학술 잡지라도 정기 구독하여 비치해 두는 곳은 흔하지 않다. 최신 정보와 지식은 우리가 이론 탐구를 하는 동안 범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경감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한다.

대학의 심장부가 새 활기를 띠고 새 혈액이 공급되어 연구 기능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고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로 각 학과에 도서실과 열람실을 설치하고 책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개가식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중앙도서관의 업무를 전산화시켜 일일이 카드를 찾는 대신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도서 선택과 전산 처리에 의한 도서 대출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것은 도

서 관리와 도서 대출을 용이하게 만든다. 세계로 도서 관리가 전산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대학 도서관과의 도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대학에 없는 책은 다른 대학에서라도 빌려 볼 수 있다면 전국의 대학이 하나의 완벽한 도서관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중요한 전공의 고전이나 전집의 결본 등은 복사를 해서라도 비치해 두어야 한다. 구입할 수 있는 도서만이 연구의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절판된 도서나 발행 연도가 오래된 학술잡지는 복사본으로라도 도서관에 진열되어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대학들은 도서 선정과 구입에 열의를 쏟아야 한다. '30년대에 출판된 독일 서적을 어느 대학에서만 구할 수가 있었다. 그 이유를 어느 원로 교수에게 물어보니 일제 시대에 그 대학의 도서관 직원은 양서 구입을 위해서 외서 판매 서점에 파견되어 있었고 해외 출장 교수들에게 도서 구입의 특전이 주어졌다고 했다. 문화 정책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그 문화적 결실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결국 앞에서 제시했던 모든 조건들은 대학의 재정과 관계된다. 정부의 대학 지도 행정이 대학의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학문 연구의 기본 조건에 관한 내실화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이다. 정부가 직접 대학 재정 지원에 나서거나 대학이 제각기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의 조달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돕거나 산학협동의 재정 지원의 방향을 대학 도서관 정비에로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대학 발전에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제각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 우선 순위 속에 대학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손쉽게 와닿을 수 없다면 학문은 정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이며 대학은 곧 병들어 버릴 것이다. *